광주·전남 야영장 5곳중 1곳은 '미등록'

국민안전처 조사 18.28%…대부분 소화기 미설치

전남 1곳은 소방차 진입 불가…안전불감증 여전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강화도 캠핑장(글램핑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광주·전남지역 캠핑장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리는 야영장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4일부터 29일까지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1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야영장을 일제조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전남 시군구가 파악한 야영장 93곳(휴폐업 야영장 2곳 포함) 중 등록된 야영장은 74곳(79.57%), 미등록 야영장은 17곳(18.28%)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야영장 비율이 높은 것은 농지·산지·보전녹지 지역처럼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들어선 야영장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등록 야영장 대부분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야영장과 글램핑장, 카라반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대형 복합캠핑장의 경우 옥내외 소화전 등 초기소화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미등록 야영장 상당수는 소화기 등 초기소화설비 등이 미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야영장은 모두 5곳인데, 이중 전남지역은 1곳이 진입로 협소로 소방차 진입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이 해마다 야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도, 전남도는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야영장 현황조사서를 작성해 119종합상황실 등 소방관서에 비치하고 야영장 사고에 따른 현장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야영장 현황조사서에는 ▲야영장업 등록여부 ▲야영장의 종류 ▲야영장의 건축물 현황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현황 ▲소방차 진입여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업주에 대해 이미 46건을 고발하고 나머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영장 등록 심사 시 소방차 진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섬 지역 등 야영장은 소화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수익은 입주자 몫"

신창동 부영 1차 입주민 반환소송 승소…전국 소송 잇따를 듯

임대아파트 내 공동시설(관리동)에 들어선 어린이집의 임대수익은 건설사가 아닌 전체 입주자 몫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마땅히 입주민 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할 공동시설을 건설사(분양사) 측이 제 것인 양 제 3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임대아파트가 적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관련 소송이나 반환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20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입주자대표회가 건설사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부영주택)는 원고(부영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건설사 측이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건설사는 2005년 1월 이 아파트를 입주자에게 임대해 의무임대 기간 5년이 지난 뒤 2012년 말 분양으로 전환했다.

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해 매월 54만~63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주민들은 그러나 "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은 주민공동시설의 일부이고, 이 공동시설은 가구별 지분이 포함된 만큼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이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3500만원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영주택이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임대아파트에서도 건설사 측을 상대로한 부당이득금 반환요구나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세월호 기억의 숲' 편의시설 설치키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완공된 진도 '세월호 기억의 숲'에 유가족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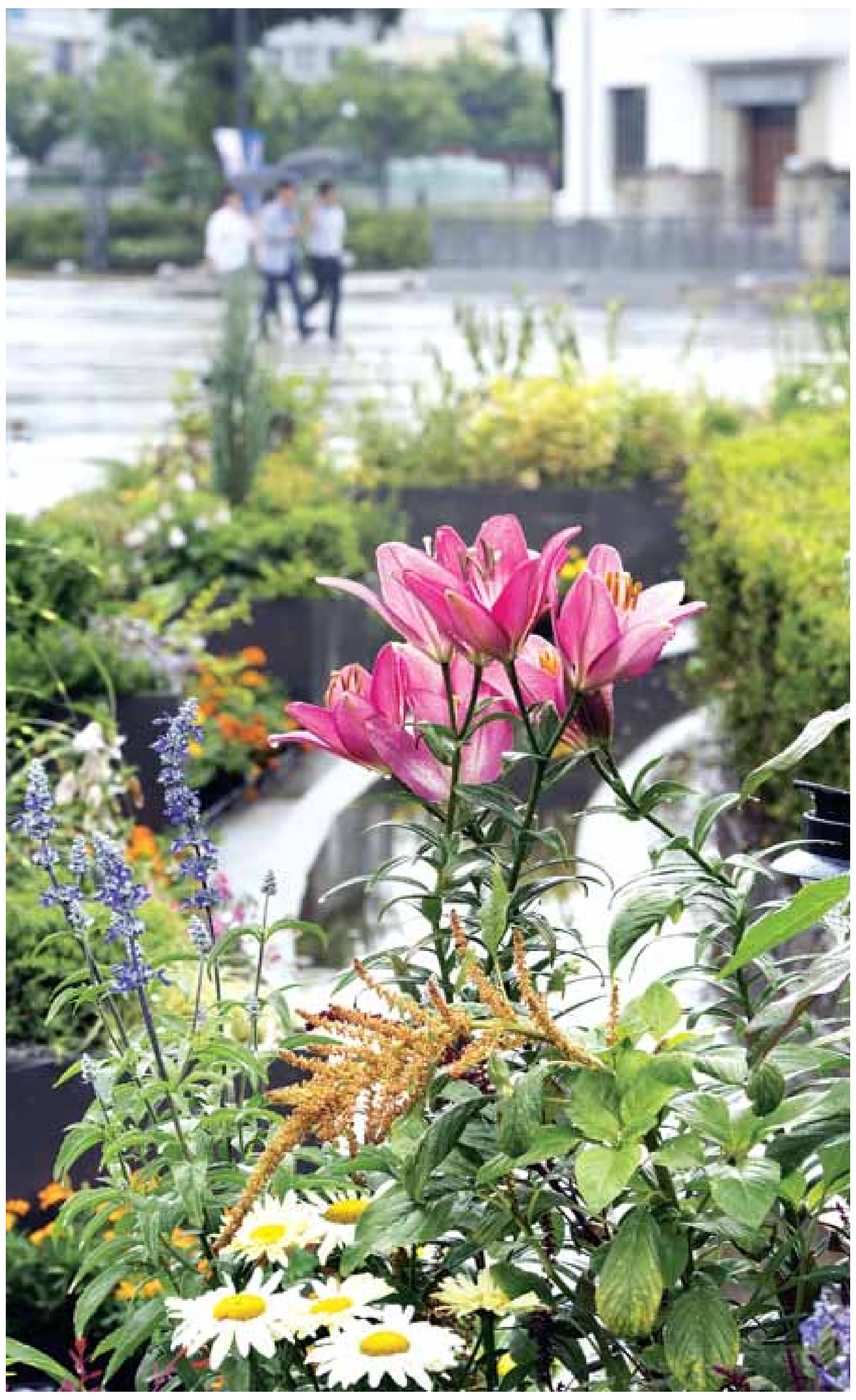
전남도와 진도군은 오는 12월까지 모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세월호 기억의 숲 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진도군 백동에 조성된 '세월호 기억의 숲'에는 쉼터 등 편익시설이 부족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진도군은 한옥형 정자와 테이블 벤치, 종합안내판과 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유가족들의 그리움이 각인돼 있는 '기억의 벽'과 은행나무 300여 그루가 심어진 숲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변 동선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세월호 기억의 숲은 오드리 헵번의 장남인 션 헵번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국민 모금으로 사업비가 마련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전당으로 오세요" 아셈문화장관회의(22~24)를 이틀 앞둔 20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에 조성된 도심정원 화초들이 장맛비로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오늘의 날씨

해뜸	05:18	달뜸	20:19
해짐	19:50	달짐	05:59

장마철 건강관리 주의

시간당 최고 20㎜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차차흐려져비	21/29	보 성	차차흐려져비	20/26
목 포	차차흐려져비	21/27	순 천	차차흐려져비	22/27
여 수	차차흐려져비	22/25	영 광	차차흐려져비	21/28
나 주	차차흐려져비	21/29	진 도	차차흐려져비	20/27
완 도	차차흐려져비	21/27	전 주	차차흐려져비	20/30
구 례	차차흐려져비	20/28	군 산	차차흐려져비	21/28
강 진	차차흐려져비	21/28	남 원	차차흐려져비	21/29
해 남	차차흐려져비	20/28	흑산도	차차흐려져비	19/24
장 성	차차흐려져비	19/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먼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먼바다(동)	남동~남	1.0~1.5	남동~남	1.0~2.0
	먼바다(서)	남동~남	1.0~1.5	남동~남	1.0~2.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2:50	08:04
	14:43	20:00
여수	09:27	03:34
	22:05	15:24

◇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2/26	21/28	21/27	21/27	22/26	22/26	21/27

오늘 밤부터 장맛비…최대 120㎜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120㎜의 폭우가 내리겠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은 21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2일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30~80㎜로, 많은 곳은 12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21일 밤과 22일 낮 사이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장마전선은 23일 남하했다가 24일 다시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경인기자 kki@

인도양서 선상 살인…한국인 2명 사망

'만취' 베트남 선원 2명 흉기 휘둘러…수사팀 현지 급파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선 '선상살인' 사건은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20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58분께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참치연승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에서 베트남 선원 B(32)씨와 C(32)씨가 선장 양모(43)씨와 기관장 강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양씨는 조타실에서, 강씨는 기관장방에서 각각 변을 당했다.

베트남 선원들은 다른 선원 10여 명과 양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선원이 가장 먼저 발견해 선실에서 휴식 중이던 항해사 이모(50)씨에게 알렸고, 항해사 이씨는 곧바로 베트남 선원들을 붙잡아 격리했다.

광현 803호에는 숨진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 선원 7명, 인도네시아 선원 8명 등 총 18명이 탑승했다. 지난해 2월11일 부산에서 출항해 두 달 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광현 803호는 현재 소말리아 모가디슈 동쪽 1368㎞ 해상에 있으며 오는 23일 오후 세이셸 군도에 입항할 예정이다. 부산 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현지에 수사팀 7명을 급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